

[Press Release] 총 13쪽

《WAGZAK》



○ 전시 개요

-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에이라운지에서 열리는 소민경, 장경린, 최수진 작가의 단체전
- 포장을 벗기고 아이싱을 가르고 왁자지껄 사람들과 나눠먹는 총체적 과정을 '와 그작'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디저트의 얽힌 여러 이야기를 펼쳐보고자 기획
- 총 22점의 작품 출품

전 시 제 목: 《WAGZAK》

참 여 작 가: 소민경, 장경린, 최수진

일 정: 2022년 12월 20일(화) – 2023년 1월 5일(목)

기 획: 김해리(아트인컬처), 최하림(에이라운지)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문의: 02-395-8135, 이승민 대표: 010-5222-8135)

개 관 시 간: 화-토, 11am-6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 사 이 트: www.a-lounge.kr

*Press Inquiries: 최하림 어시스턴트 디렉터 (summerforest@a-lounge.kr, 02-395-8135)

○전시 내용

소민경, 장경린, 최수진이 참여하는 《WAGZAK》이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된다. 전시는 디저트에 얽힌 여러 이야기를 펼쳐 보고자 기획되었다. 포장을 벗기고 아이싱을 가르고 왁자지껄 사람들과 나눠먹는 총체적 과정을 '와그작'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펼쳐본다.

《WAGZAK》은 디저트의 모양, 포장, 나눔을 개괄할 수 있는 의태어에서 출발했다. 장경린은 한입에 쏙 먹음직스러운 '디저트 조각'을 만든다. 작가는 일상에서 실제로 먹은 디저트의 맛과 형태, 그리고 그때의 기분을 상기해 입체물을 빚는다. 소민경은 '음식 사진'을 그린다. 그리드와 레이어로 분할되고 패턴과 형상이 중첩된 그림은 마치 위장술로 둘러싸인 듯하다. 작가는 내용물을 보호하기도, 교란하기도 하는 포장에 주목했다. 최수진은 강아지 파티시에가 꼬물꼬물 디저트를 만들어 (동물) 친구들과 오순도순 나누어 먹을 환상의 세계를 상상했다. 이들이 주최한 파티는 디저트의 달콤한 맛을 상상하는 것에 상응하는 꿈과 현실이 흐려지는 낭만의 순간이다.

전시에는 총 22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신년 운세를 점칠 수 있는 포춘쿠키가 소진 시까지 무료 배포되고 있다. 서문은 전시를 공동 기획한 아트인컬처 김해리 기자와 에이라운지의 최하림 어시스턴트 디렉터가 함께 작성하였다.

○전시 서문

와그작! 하고 짹 베어 물면 달콤 고소 짹짹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질 것 같다. 어린 시절 입안에서 돌돌 굴렀던 캔디처럼 아찔하리만치 경쾌한 이 의태어는 고칼로리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 냉장고 깊숙이 몰래 숨겨둔 궁극의 디저트로 지친 일상을 잇는 '와그작 타임'. 그런데 우리는 오직 디저트의 달달한 '맛'에만 빠진 걸까?

반세기 전의 미술가들도 디저트 도상에 주목한 적이 있다. 팝아트는 일부 귀족들만 누리오던 고급 다과가 값싼 과자로 대량 생산되고, 이것이 싸구려 마트의 진열대에 빼곡히 진열된 현상을 날카롭게 포착해 냈다. 케니 샤프의 도넛과 웨인 티보의 케이크는 '과잉과 과적의 소비 사회'를 나타내는 증거였다. 이제 동시대에 디저트 이미지는 일상으로의 보급 차원을 넘어, SNS의 대홍수를 타고 오프라인으로 범람해 현실을 역습하고 있다. 실로 총천연색의 파티스리의 향연을 보고 있자면, 단순히 그 맛에 균침을 싹 댈기보다도 탱글한 이국의 과일과 녹진하게 흐르는 시럽을 내 핸드폰에 박제하고 말겠다는 의지로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누르는 데 집중하게 된다. 그야말로 '눈으로 더 맛있게 먹는 시대'이다.

디저트가 오감을 홀리는 '푸드 포르노'의 주인공이 된 데에는 그것이 '금단의 열매'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쿠키, 마카롱, 다쿠아즈, 크로플, 카눌레, 탕후루... 입은 즐겁지만 몸엔 해로운, 그래서 어릴 적엔 부모의 감시로 통제됐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어마어마한 당분의 압박에 마음껏 먹을 수는 없는 디저트에는 보이지 않는 양심의 상한선이 존재한다. 때문에 디저트를 갈라 먹는 기쁨(pleasure) 이면에는 완벽한 표면, 환상적 금기에 흠을 내는 죄책감(guilty)이 있다. 와그작은 그렇게 균열의 신호가 된다.

사실 '와그작'의 사전적 의미에도 뽕튀기의 송송 뚫린 구멍처럼 '틈'의 가능성이 숨어있다. (1) 여럿이 좁은 곳에서 시끄럽게 복작거리는 소리나 모양. (2) 질기고 뽕뽕한 물건이 마구 스치거나 쓸릴 때 나는 소리나 모양. 그러니까 와그작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마찰을 내는 행위에 가깝다. 단순히 디저트를 분지르는 동작뿐만 아니라, 통통한 알맹이를 포장지로 감쌌다가, 이를 꺼내 왁자지껄 나눠 먹는 총체적인 과정이 '와그작'인 것이다.

《WAGZAK》은 디저트의 모양, 포장, 나눔을 개괄할 수 있는 의태어에서 출발했다. 장경린은 한입에 썩 먹음직스러운 '디저트 조각'을 만든다. 작가는 일상에서 실제로 먹은 디저트의 맛과 형태, 그리고 그때의 기분을 상기해 동그랗고 쫘득한 입체물로 빚는다. 특정 순간을 응결한 그의 조각은 디저트로 쓴 '추억 레시피'이다. 소민경은 '음식 사진'을 그린다. 그리드와 레이어로 분할되고 패턴과 형상이 중첩된 그림은 마치 위장술로 둘러싸인 듯하다. 포슬포슬한 화면에는 개암 껍데기, 감자 껍질, 빵의 용기(容器) 등 '껍'의 흔적이 남아있다. 작가는 내용물을 보호하기도, 교란하기도 하는 포장에 주목해 음식의 '존재론'에 접근한다. 최수진은 강아지 파티시에가 꼬물꼬물 디저트를 만들어 (동물) 친구들과 오순도순 나누어 먹을 파티 준비를 상상했다. 이들이 주최한 파티는 꿈과 현실이 흐려지는 낭만의 순간이요, 그곳에 차려진 포춘 쿠키는 새로운 세계를 점지하는 운명의 텔레포트다. 작가는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린 세계의 경계를 단란한 마음으로 용해하려 한다.

글 / 김해리 최하림

○ 작가 소개

소민경 (B.1984)

소민경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에서 석사를 수료한 뒤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765(2016), 취미가(2020)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Antifreeze>(합정지구, 2019), <장식전>(캔파운데이션 오래된 집, 2020), <from유령사과&스테인드글라스@스티치그룹>(5%, 2020), <대사관>(스페이스 카다로그, 2021) 등 단체전도 다수 참가해왔다.

장경린 (B.1996)

장경린은 골드스미스대학교(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현재는 서울에서 거주하며 활발히 작업하고 있다. LKIF 갤러리에서 2020년과 2022년에 개인전을 가졌으며, 2021년에는 얼터사이드에서 2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페리지원터쇼>(페리지갤러리, 2022), <CAKEY, A Cake is a Key!>(과수원, 2021), <좌 우로 앉기>(가삼로지음, 2020) 등이 있다.

최수진 (B.1987)

최수진은 중앙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며, 쿤스트독(2010), 이유진갤러리(2015), 합정지구(2017), 하이난의 아트미아 스페이스(2022)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CRE8TIVE REPORT>(OCI 미술관, 2016), <누구에게나 시선을 열려있다>(아트센터 화이트블럭, 2016), <Array>(갤러리바톤, 2019),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국립현대미술관 청주, 2019), <깍지>(OCI 미술관, 2020), <너와 내가 만든 세상>(포도뮤지엄, 2021), <유머랜드 주식회사>(대구미술관, 2021) 등 유수의 단체전에도 활발히 참가해왔다.

○ 대표 작품



최수진, <쿵짝 쿵짝>, 캔버스에 유채, 181.8 x 181.8cm, 2021



최수진, <호드와 N>, 캔버스에 유채, 45.5 x 37.9cm, 2022



장경린, <Make a sweesh!>, 제스모나이트, 레진, 염료, 바니쉬,
유리섬유, 에폭시글루, 코르크, 16 x 16 x 14cm, 2022



장경린, <뜻밖의 맛>, 제스모나이트, 레진, 염료, 유리섬유,
에폭시글루, 코르크, 14 x 14 x 16cm,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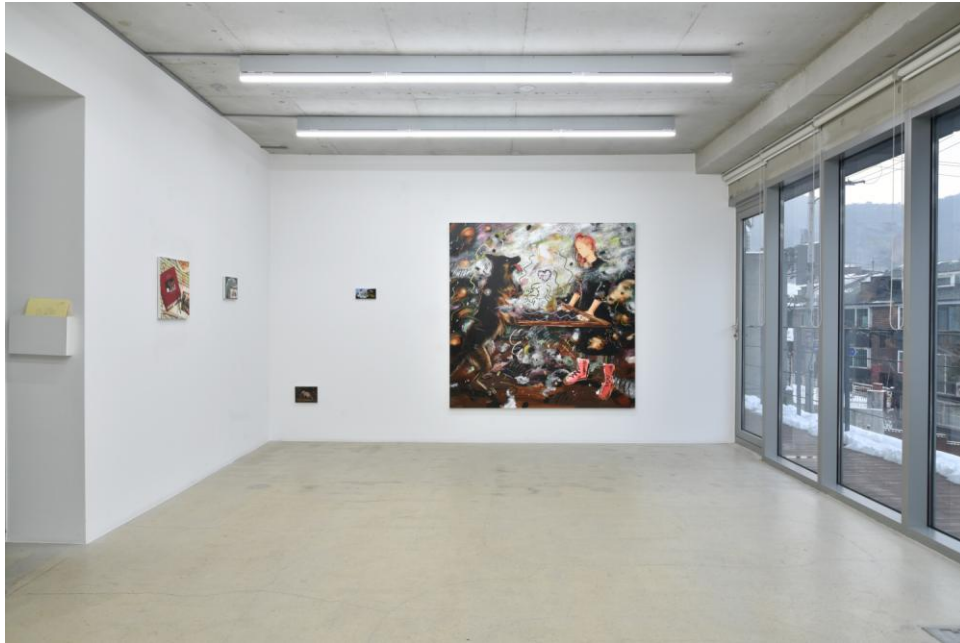


소민경, <Regular>, 린넨에 아크릴릭, 90.5 x 72.7cm, 2022



소민경, <Shell>, 린넨에 아크릴릭, 18 x 25.6cm, 2022

○ 설치 전경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 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 Courtesy of A-Lounge, Seoul